「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4호(2022. 2): 63-90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5 No.4 (February 2022)
http://dx.doi.org/10.20484/klog.25.4.3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의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울산시 북구를 중심으로*

김 도 희**

국문요약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이 가능하게 하려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이 유능한 인재로 잘 자라서 그들의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은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정책적 시사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과정에서 조성 방향과 고려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울산의 경우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인구유출 예방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과 행복감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울산시의 타 기초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 아동친화도시인증, 아동복지, 아동정책

Ⅰ. 서론

미래가 있는 도시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장래 일꾼이 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계 각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위주의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이 가능하려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이 유능한 인재로 잘 자라서 그들의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어린이 교통사고, 아동학대 등의 사건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김민식 군의 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인천에서 화

* 본 연구는 2021년 울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물차 운전기사가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조선일보, 2021. 4. 8.). 또한 2020년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트럭 운전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와 세 남매를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조선일보, 2020. 11.24.)과 부산 해운대 재송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 사고 등 여전히 아동교통사고의 위험은 존재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아동학대는 2019년에만 3만 건 이상 발생했고, 매년 10-60% 증가 추세다. 학대로 인한 사망 역시 늘고 있다. 2018년엔 28명이었으나 2019년엔 42명으로 증가하였다(국제신문, 2020. 10. 26.).

이러한 심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은 미흡했다. 취약한 환경 속에 사회적 보호망을 통해 전혀 보호받지도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가 언론을 통해 아동 관련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또다시 관심이 분산되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아동학대 및 아동 교통사고 등은 반복되어 왔다. 유니세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17; 서영미, 2018:383).

아동이 살고 있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거리에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녹색환경을 누릴 수 있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이벤트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놀 수 있고, 인종·종교·성별·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은 마땅히 이러한 아동친화적인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는 것이다(서영미, 2018:388). 이러한 측면의 많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이 행복한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였는데 7월 정식 가동할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해 어린이 안전이 가장 우선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아동학대 문제도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협력해 관리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조선일보, 2021. 5. 17.).

이처럼 최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의 인증절차를 거쳐 인증되는 도시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의 정신을 기초로 아동 및 청소년의 보편적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가 실현되는 도시를 의미한다(이태수, 2016).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2018년 기준 30개국 1,300여 개였으나 2021년 현재는 40여 개의 국가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1), 국내에서는 2013년 11월 서울시 성북구가 유니세프로 처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그 이후 2016년 서울시 도봉구와 송파구가 인증을 받았고, 2021년 5월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국내 자치단체는 모두 52개이다. 2018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성북구 등 총 29개 도시가 인증을 획득했고, 울산과 제주도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2018년 이후 3년 채 지나지 않아 많은 지자체가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고, 울산에서는 북구가 유일하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정책적 시사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과정에서 조성 방향과 고려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한 북구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인구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울산의 경우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인구 유출 예방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과 행복감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울산시의 타 기초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고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배경

아동친화도시의 필요성 제기와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은 유니세프에 의해 추진되었다. 유니세프는 1948년부터 우리나라 아동을 지원해왔으며, 1950년 3월 25일 대한민국 정부와 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유니세프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은 위해 대대적인 구호활동을 시작했고, 그 후 1993년 말까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어린이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설립이후 아동을 위한 모금사업, 아동의 권리옹호, 모유수유 권장 및 세계교육사업 등을 전개하고, 대표적인 아동 정책 제안자로서 아동권리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UNICEF, 1995: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21:5).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 후,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및 위원회 권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동권리 보장 기반 마련에 노력하였으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이념 및 관련 규정이 국내법적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 및 어른의 인식 수준도 여전히 낮은 단계이다. 유니세프는 2000년대 이탈리아 폴로렌스에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이 설립되면서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서영미, 2018:385-386).

아동이 태어나서 자라고, 삶의 행복을 누리는 공간이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을 통한 아동이 태어나서 자라고, 삶의 행복을 누리는 공간이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자체는 지역사회에서 아동권리 보장은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21:6). 이런 측면에서 유니세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발달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기성세대와 사회 전체의 책무이다(박세경, 2016:63). 아동을 성인에 의한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 차원에서가 아니라 아동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사회구성원으로 보고, 도시의

미래 역량 강화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아동복지와 관련한 정책을 보면,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아동에 대한 사후 대책 위주이고, 가족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의 시민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아동복지정책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고,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하고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은 건강하고 민주적인 사회, 굿 거버넌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설계가 필요하다.

2. 아동친화도시의 개념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정의에 의하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런 지역사회에서 사는 아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행정체계와 제도하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21:7)를 의미한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다시 말해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단위에서 추진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목적은 전 세계의 각 지자체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정도를 평가하고, 아동의 진솔한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조직 개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률 제정, 예산의 평가와 실행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Morrow, 1999)를 활성화하도록 독려하는 것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서영미, 2018:388).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는 유니세프가 제시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로서 이 구성요소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국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10가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예산분석 및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아동영향평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이다. 또한 이은혜·홍영준(2020)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시의 아동친화도시 조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아동권리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3. 선행연구 고찰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연구를 보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아동친화 관련 시설 기반구축 관련 도시계획적인 측면, 아동권리 보장 등의 연구∨등

이 있다.

먼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로서 이은혜·홍명준(2020)의 연구와 최선경(2019)의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된 제도를 점검하고 내실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정책수립과 사업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해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데 반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최아라·김혜순·이숙(2019), 김진숙(2017), 홍승애·이재연(2014)의 연구 등이 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연구로는 이선주·김성길·Frank Eckard(2020), 신정엽(2018), 박효숙·이우민·김승남·김재철·이경환(2017)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선주·김성길·Frank Eckard(2020)의 연구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분야의 중요성이 조명되어야 하고 아동에게 위험한 도시공간의 개선이 필요하고 아동의 참여를 통해 기존 도시의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Bridgman(2004), Riggio(2002) McAllister(2008) Nour(2013) 등의 연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아동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는 아동권리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다. Isami kinoshita(2014), 유희정 외 3인(2017:167)의 연구에서는 일본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아동의 의견과 요구를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동권리를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박금식(2017)의 연구에서도 부산시 행정 영역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확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 교육, 아동과 관련된∨업무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권리의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아동친화도시의 개념규정, 아동의 권리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동권리, 도시계획시설, 아동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의 단편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이나 의미 등을 살펴보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관점에서 사업 수행의 배경과 조건들 그리고 한계들을 파악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아동친화도시∨조성 사업이 울산광역시 북구의 도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앞으로의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하고자 한다.

4. 연구의 분석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0가지 원칙은 앞의 아동친화도시의 목표가 실현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으로 볼 수 있다. 10가지 원칙은 i) 아동의 참여, ii)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iii) 아동권리 증진 전략 개발, iv) 아동권리 전담 기구, v)

아동영향평가, vi) 아동 관련 예산확보, vii)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viii) 아동권리 홍보, ix)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x)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들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북구가 되기 위해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10가지 원칙을 잘 준수할 필요가 있다.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파악해야 할 현황으로는 아동 인구수와 아동 관련 도시기반 시설로 어린이 놀이와 여가·문회시설 현황 파악이 필요해 보이며, 아동의 참여와 권리 보장 관련 사회활동 참여 정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와 정부의 노력 정도, 아동의 건강과 교육 등의 실태 파악, 아동전담기구 설치 여부, 아동 친화적인 법·제도의 마련, 아동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한 북구의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조사영역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북구의 아동 인구수와 어린이 놀이와 여가(문화), 사회활동 참여, 안전과 보호, 건강, 교육, 정책적 지원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연구의 분석틀

구분	분석변수
아동인구수	· 북구의 아동인구 추이 · 울산지역 구·군별 아동 인구수 비교
사회활동참여	· 원탁회의, 시민토론, 아동의회. 동아리, 방과 후 할동 등을 통한 참여 여부
놀이와 여가(문화)	· 어린이 공원 현황 · 공공도서관 현황 · 문화시설 현황 · 체육시설 현황
안전과 보호 영역	· 어린이집 현황 · 아동복지시설 현황 · 아동·청소년 복지기관 현황 ·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 아동학대 현황
아동 건강	· 아동의료시설 현황 · 아동급식 지원과 예산
아동 교육	· 유치원·초등학교·증학교·고등학교 현황
정책 지원 영역	· 조직과 예산 · 법·제도적 기반

Ⅲ. 울산시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관련 실태 분석

1. 북구의 지역적 특성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필요성

1) 북구의 지역적 특성

울산은 2020년 기준 울산 인구는 116만 8469명이다. 외국인 2만 450명이 포함된 수치다. 역대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15년(119만 9,717명)에 비하면 3만 1,248명이 감소했으며, 매년 평균 약 6,200여 명씩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울산광역시, 2015, 2020).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은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요인으로는 조선업 위기 등 지역 주력산업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인구유출 현상과 저출산에 따른 출생아 수 감소의 자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일자리 감소로 젊은 층이 빠져나가게 되면 출생아 수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 인구감소 현상은 더욱 심화 된다고 하겠다.

인구는 도시의 경쟁력을 가름하는 잣대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인구감소는 거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재정의 감소 및 지방교부세 감소와 같은 재정적 측면과 아울러, 행정조직의 축소와 같은 행정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 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경상일보, 2021. 5. 25.). 이처럼 울산 전체적으로는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는 데 반해 북구는 〈표 2〉에서 보여주듯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북구와 울주군을 제외한 중구, 남구, 동구 모두 인구감소 추세를 보인다. 인구 증가 폭은 울주군보다 북구가 더 크다.

북구의 인구 증가 현상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다른 구·군에 비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출생아 수의 증가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 변화 현상에 대응하여 북구가 유입된 인구의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시 중에서도 북구가 가장 먼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미래 북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 하겠다.

또한, 북구는 도·농 복합 지역이고 산업단지와 강동 해변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안고 있어서 미래의 발전 잠재력이 큰 도시이다. 여기에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 정부가 미래 사회의 주체인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면 북구의 미래는 밝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구의 지역적 특성을 보더라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표 2〉 울산광역시 구·군별 인구 및 세대수 추이

(단위: 명, 세대)

구분	인구	세대수(내국인)	세대당 인구수(외국인 포함)
합계(2020)	1,168,469	468,659	2.45
중구	225,644	93,062	2.40
남구	328,932	135,311	2.39
동구	163,106	65,183	2.45
북구	220,323	81,144	2.68
울주군	230,464	93,959	2.38
합계(2019)	1,175,625	461,756	2.54
중구	234,130	94,102	2.49
남구	335,794	134,986	2.49
동구	167,779	65,791	2.55
북구	208,855	75,403	2.77
울주군	229,067	91,474	2.50
합계(2018)	1,185,645	458,547	2.54
중구	240,858	95,386	2.50
남구	340,367	134,372	2.50
동구	173,096	66,888	2.54
북구	203,234	72,416	2.77
울주군	228,090	89,485	2.47
합계(2017)	1,195,761	455,352	2.57
중구	244,954	95,673	2.54
남구	346,201	134,140	2.54
동구	179,333	68,548	2.55
북구	197,882	69,693	2.80
울주군	227,391	87,298	2.51
합계(2016)	1,199,717	451,688	2.60
중구	247,016	95,710	2.60
남구	349,328	133,669	2.55
동구	181,207	68,359	2.57
북구	193,737	67,469	2.83
울주군	228,429	86,481	2.54

자료: 울산시(2020, 2019, 2018, 2017, 2016), 시정백서, 인구 추이 현황 참고.

2.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관련 현황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친화도시 관련 현황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조사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북구의 아동 인구수와 어린이 놀이와 여가(문화), 사회활동 참여, 안전과 보호, 건강, 교육, 정책적 지원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아동 인구수

북구의 아동 인구는 〈표 3〉을 보면, 2012년 49,110명에서 2016년 45,272명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7년 45,523명으로 소폭이긴 하지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21년 4월 기준 48, 262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4월 기준 울산지역 구·군별 아동 인구 현황을 보면, 북구가 전체 인구대비 아동 비율이 22%로 울산시 평균이 18.3%인 것보다 높고, 중구 16.6%, 남구 16.7%, 동구 19.2%, 울주군 17.8%인 것에 비해 북구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울산광역시 북구의 아동 인구 추이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4월
인구수	49,110	47,684	46,722	45,637	45,272	45,523	45,714	47,387	48,262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 참고

〈표 4〉 울산지역 구·군별 아동 인구수(2021년 4월 기준)

구분	전체 인구수(명)	아동 인구수(명)					전체 인구대비 아동 비율
		아동 인구	0~4세	5~9세	10~14세	15~19세	
울산시	1,128,163	206,749	39,437	56,418	56,353	54,541	18.3%
중구	214,901	35,885	6,330	9,773	9,947	9,835	16.6%
남구	371,672	53,163	9,576	13,752	14,408	15,427	16.7%
동구	155,511	29,965	5,718	8,667	8,306	7,274	19.2%
북구	218,410	48,262	10,629	14,111	12,834	10,688	22%
울주군	221,669	39,474	7,184	10,115	10,858	11,317	17.8%

자료: 울산시 북구(2021), 여성가족정책과 내부자료.

2) 사회활동 참여

북구는 아동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과거보다 참여시스템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 원탁회의, 시민토론, 북구아동의회, 동아리, 방과 후 활동을 등을 통해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동의회는 2019년 6월에 발족하여, 한 달에 1회 개최를 통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020년 6월 20일에는 제2대 아동의회 발대식을 구청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발 발대식에는 아동의원 보호자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등이 함께하였고, 아동의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 30명을 선정해 구성되었다.

아동의회는 아동의 4대 권리 중 참여권을 조장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원칙 중 아동의 참여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구성된 아동 참여기구로 2019년 제1대 아동의회를 시작으로 2020년 제2대 아동의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1대 아동의회의 성과로는 아동 급식카드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고용 교육, 아동 의견을 반영한 놀이터 조성 등 활발한 정책을 제안했으며 실제 정책에도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경상일보, 2020. 6. 22.).

3) 놀이와 여가(문화)

울산광역시 북구의 공원은 2021년 1월 7일 기준 총 107개의 공원이 있으며, 생활권 공원(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포함)이 100개의 공원이 있으며, 그 중 어린이 공원이 47개로 가장 많다. 그리고 주제 공원(수변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해안공원 등 포함)이 7개의 공원이 있으며, 그중 역사공원이 가장 많다. 울산지역 구·군별 공원 현황을 보면 울주군이 192개로 가장 많고,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순을 보인다. 어린이 공원 역시 울주군이 93개로 가장 많고,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순을 보인다.

〈표 5〉 울산지역 구·군별 공원 현황(2021년 1월 7일 기준)

(단위: 개, ㎡)

구분	계	어린이 공원		소공원	근린 공원	역사	문화	역사 문화	해안	수변	묘지	체육
		시설수	면적 (천㎡)									
중구	108	59	121	25	19	2	0	1	0	2	0	0
남구	132	87	215	26	15	0	2	0	0	0	1	1
동구	64	42	110	15	7	0	0	0	0	0	0	0
북구	107	47	112	25	28	3	1	0	1	2	0	0
울주군	192	93	188	43	39	1	4	0	0	11	0	1

자료: 울산광역시 북구(2021), 울산 북구 기본현황 관련 내부자료.

북구의 공공도서관은 2010년 5개소, 2012년 6개소, 2017년 7개소로 2021년 현재까지 7개소로 중앙 도서관, 매곡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농소1동 도서관, 농소3동 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 명촌 어린이 도서관 등이 있다. 북구는 7개소의 구립도서관 외에도 36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이 10분 이내의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안한 쉼터이자 아이들의 안전한 공부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구의 문화시설로는 북구 예술창작소가 있다. 이곳은 예술가와 주민들의 소통, 힐링의 공간으로 울산 북구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센터이다. 작가들에게 거주 공간 제공 및 창작활동 지원을 하고, 북구의 창의적 예술 환경을 조성한다. 북구 예술창작소는 1층 갤러리, 2층 6개의 작가 작업실, 옥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갤러리에서는 지역 아동 등의 각종 전시전을 개최하기도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북구의 문화재로는 관문성,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박상진의사생가, 신흥사 구 대웅전, 중산동 고분군, 우가산유포봉수대, 유포석보, 상안동 지석묘, 창평동지석묘군, 곽임(미역바위), 달천철장, 산동취락유적, 강동화암주상절리, 대안동 쇠 부리 터, 매곡동 생활유적 등이 있다.

그리고 북구에는 아이들을 위한 문화와 예술, 놀이와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인 세대공감 창의놀이터가 있다. 이 문화시설은 사용 중단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용지를 활용하여 만든 공간으로 2015년 6월 9일부터 개관하였다. 이 시설은 아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내 안의 놀이 감성과 예술 감성을 깨워주는 기획행사, 모든 세대가 참가할 수 있는 축제들을 통해, 함께 즐기고 웃고 놀면서 소통할 수 있는 창의놀이터이다. 또한, 북구에는 문화쉼터 몽돌을 운영하고 있다. 각종 전시, 강좌, 공연 등도 하고 독서동아리, 지역 아동공부방 등 주민들에게 소규모 모임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시설로는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북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 제공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및 방과 후 돌봄을 위해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유 학년제와 관련 청소년들의 직업 체험활동 제공기관을 발굴·연계하는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천곡문화센터 4층에 분관 형태의 '꿈에 마루'를 운영하여 다양한 체험행사와 교육문화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는 위기 청소년의 발견, 생활 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다(울산광역시 북구, 2020:398).

북구의 체육시설로는 공공체육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체육시설로 육상경기장, 축구장, 테니스장, 간이운동장, 생활체육관, 수영장, 국궁장 등이 있다. 이 중 간이운동장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축구장이며, 수영장은 2010년 2개소 이후 2017년까지 2개소이다가 2018년에 3개소로 1개소의 수영장이 더 증가했다(울산시 북구, 2019).

3) 안전과 보호 영역

(1) 어린이집 현황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출산 시대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북구는 이런 차원에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3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품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지도·점검 사항은 어린이집 입소 순위,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운영 일반,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등 회계 부문 전반, 급·간식 운영 및 식품 위생관리 실태, 보육 교직원 자격·급여·4대 보험·퇴직급여 등의 적정성 여부, 어린이집 차량등록, 안전관리, 기준준수 사항 등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을 통해 향후 유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고 있다(울산광역시 북구, 2020:400).

울산지역 구·군별 어린이집 현황을 〈표 6〉을 통해서 보면 북구가 타 구·군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모두 196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남구 189개소, 울주군 127개

소, 중구 115개소, 동구 109개소에 비해 좋은 보육 환경 마련에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북구 역시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2020년 4월 1일 자로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표 6〉 울산지역 구·군별 어린이집 현황(2021년 5월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중구	115	7	3	0	64	32	0	9
남구	189	25	1	0	76	75	3	9
동구	109	12	0	0	55	36	0	6
북구	196	30	2	2	76	79	2	5
울주군	127	17	7	3	60	32	0	8

자료: 울산시 북구(2021), 여성가족정책과 내부자료.

(2) 아동복지시설 현황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관내 공동생활가정 2개소를 운영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겨자씨와 온유와 감사의 집 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모여서 지내고 있으며, 아동의 교육과 성장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울산광역시 북구, 2019:38).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9개소와 돌봄센터 5개소 운영을 통해 방과 후 아동의 부진 학습지도와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통해 아동의 보호 ·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등 아동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표 7〉 북구의 아동 돌봄센터 운영 현황

시설명	위치	운영시간	주요사업	이용자 수
공동육아 나눔터 제1호	강동 산하 5로 66 블루마시티푸르지오1차 내)	월-금 (10:00-19:00)	초등 돌돔프로그램 가족 품앗이	3,739명
공동육아 나눔터 제1호	강동 산하 5로 52 (힐스테이트 강동 내)	월-금 (10:00-19:00)	초등 돌돔프로그램 가족 품앗이	152명
공동육아 나눔터 제1호	달천로 50 (달천아이파크 1차 내)	월-금 (10:00-19:00)	초등 돌돔프로그램 가족 품앗이	510명
다 함께 돌봄센터 제1호	동재 5길 3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월-금 (10:00-19:00)	돌봄 지원 및 기초학습 지도 등	3,014명
다 함께 돌봄센터 제2호	율동2길 8 (효문 코오롱 하늘채 내)	월-금 (10:00-19:00)	돌봄 지원 및 기초학습 지도 등	1,730명

자료: 울산광역시 북구(2020), 구정 백서, p. 406.

〈표 8〉 북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설치일	정원(명)	지원현황
푸른 희망	새장터6길 8-1, 2층	2002.04.17	19	운영비 및 인건비 : 월 4,839천원 -7,130천원 차등 지원
이화	이화4길 10-4	2004.03.21	29	
하늘 아이	동대중앙로 48, 2층	2004.10.04	40	
양정 느티나무	양정1길 39, 2층	2004.12.07	19	
호계 느티나무	호계로 196, 2층	2005.10.07	29	
소망	정자6길 3-2, 2층	2006.08.29	29	
이삭	찬샘1길 17	2009.06.18	29	
천곡	천곡길 161, 107-201	2009.07.29	29	
우리들	상방로 143, 4층	2017.01.31	29	

자료: 울산광역시 북구(2020), 구정 백서, p. 408.

이외에도 기타 아동·청소년 복지기관 현황은 〈표 9〉와 같다. 북구는 복지시설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외에도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과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먼저 아동발달계좌지원사업에 관해 설명하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 마련 등에 드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가정위탁 아동,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및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아동 중 만 12세~17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마련된 제도이다. 드림스타트 전담부서 설치 및 분야별 전문인력(아동통합사례관리사) 배치를 통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통합서비스를 연계 ·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와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슈퍼비전, 멘토-멘티체계를 통해 사업운영에 대한 자문 및 서비스 연계 · 조정, 비결과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울산광역시 북구, 2020:408).

〈표 9〉 북구의 기타 아동·청소년 복지기관 현황

구분	시설명	세부내용
아동·청소년 복지기관	마이코즈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의식주 제공, 의료지원, 법률지원을 비롯한 상담서비스, 가정·사회 복귀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음
	한국 청소년 울산광역시 연맹	자기계발, 문화 감성 활동, 과학정보 활동, 나라 사랑 활동, 전통문화, 모험 개척, 사회봉사,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울산 YWCA	결혼 이민자 사업, 사회교육사업, 다문화 작은 도서관, 유아 체육사업, 어린이 수영, 아기 스포츠단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울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사업,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지원, 방과 후 아카데미 및 학생 자치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북구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센터	자유 학기·학년제와 연계하여 학교 안·밖에서 직업에 대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울산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위기 예방 및 위기개입 사업,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긴급지원,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자료: 울산광역시 북구(2019),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연구, p. 38

(3)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울산 북구 13세 미만(12세까지)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2011년 부상자 52명, 2012년 사망자 2명, 부상자 68명이었다가 2017년에는 부상자 29명으로 사망자는 없고 부상자의 수도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망	0	2	0	0	0	0	0	0
부상	52	68	69	47	45	50	29	30

자료: 울산광역시 북구(2019),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연구, p. 41 참고하여 재구성

(4) 아동학대

울산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2016년 822건, 2017년 942건, 2019년 986건, 2020년 1,444건으로 2016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구지역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표 11〉 울산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아동학대 시스템통계)

(단위: 건)

구분	아동학대 신고 건수					사례판정 결과					
	계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복신고	일반상담	계	아동학대 사례	조기지원 사례	잠재위험 사례	조사진행 중사례	일반사례
2016	822	91	731	-	-	822	683	82	-	-	57
2017	942	62	797	8	75	859	737	80	-	-	42
2018	922	11	850	10	51	861	738	86	-	-	37
2019	986	15	898	6	67	913	804	66	-	-	43
2020	1,444	22	1366	3	53	1,388	1,213	57	-	36	82

자료: 울산광역시 북구(2021), 가족정책과 내부자료

〈표 12〉 울산광역시 북구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

(단위: 건)

구분	아동학대 신고 건수					사례판정 결과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복 신고	일반 상담	계	아동학대 사례	조기지원 사례	잠재위 험사례	조사 진행 중 사례	일반 사례
2016	120	13	107			120	106	9			5
2017	146	19	115	1	11	134	121	10			3
2018	193	4	184	2	3	188	172	10			6
2019	246	2	227		17	229	202	16			11
2020	372	2	358		9	363	331	11		1	20

자료: 울산광역시 북구(2021), 가족정책과 내부자료.

〈표 13〉 울산광역시 북구의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수

(단위: 명)

구분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의 원인										
	소계	유기	미혼 부모 혼외자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교정시설 입소	부모 이혼등
2016	13		5								8
2017	19		1			14					4
2018	9				4	1					4
2019	9		2			3					4
2020	13	1	0			1	1	1		5	4

자료: 울산광역시 북구(2021), 가족정책과 내부자료.

4) 건강

(1) 아동 의료시설

울산광역시 북구의 의료시설로는 2019년 6월 기준으로 총 198개의 의료시설이 있다. 그중 종합병원, 부속 의원이 1개이고, 의원이 67개로 가장 많다. 병상 수로는 1, 549개가 있으며, 그중 5개의 요양병원에서 병상 수 737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구 내 어린이 전문병원은 울산아동병원 1개소나 소아·청소년과를 둔 병원은 15개소이다.

〈표 14〉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시설 현황(2019년 기준)

(단위: 개)

구분	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부속 의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안경원	치과 기공소	안마 시술소	안마원
시설 수	198	1	4	5	1	67	48	31	30	8	1	2
병상 수	1,549	1,549	442	737	-	111	-	-	-	-	-	-

자료: 울산광역시 북구(2021), 가족정책과 내부자료

(2) 아동 급식 지원과 예산

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2016년 이후 2021년 5월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원대상 인원이 중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 구군 모두 감소 추세에 있다. 중구도 2016년에서 2020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21년에 지원 대상자가 70명 증가하였다. 하지만 북구는 다른 구·군과는 달리 아동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 급식 지원 인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2016년 1,180명, 2017년 1,140명, 2021년 1,080명이다.

급식 지원 대상자 기준은 지원 나이가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그 대상이다. 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ii)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iii)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아동, iv) 보호자가 사망, 가

출, 행불,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보호 필요 아동, v)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vi)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vii) 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 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이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외국 국적 아동 중 이상에서 제시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등이 지원대상이 된다(울산시 북구 가족정책과 내부자료, 2021.6.).

5) 교육 영역

(1) 유치원 현황

울산광역시 북구의 유치원 현황을 울산시 5개 구·군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비교해 보며, 울주군이 48개소로 가장 많고, 북구와 남구 44개소, 중구 36개소, 동구 26개소의 순을 보인다. 유치원의 경우 공립유치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5개 구·군 모두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많고, 원아 수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사립이 공립보다 원아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북구의 경우 공립유치원이 19개소, 사립유치원이 25개소인데 원아 수를 비교해 보면, 사립유치원의 원아 수가 1,473명,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는 3,321명으로 사립유치원의 원아 수가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보다 2배 이상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유치원 현황 및 원아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중구, 동구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원아 수가 증가하였으나 2018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남구와 울주군 역시 원아 수가 201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 반면에 북구는 유치원 수가 2015년 36개소에서 2019년 45개소로 증가하였고, 원아 수도 2015년 4543명에서 2016년 4744명, 2018년 492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9년에 4678명으로 다소 감소 현상을 보였으나 2020년에 다시 4794명으로 증가하였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사실은 울산광역시 5개 구·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북구는 다른 구·군에 비해 현격히 원아 수가 많으며, 북구를 제외한 모든 구·군이 원아 수 감소 추세를 보인 데 비해 북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현황

울산광역시 북구의 초등학교 현황을 2020년 12월 기준으로 울산시 5개 구·군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구가 31개소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울주군 30개소, 북구가 22개소, 중구가 21개소, 동구가 16개소의 순을 보인다. 초등학교 학급수로는 남구가 제일 많긴 하나 학급수 대비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남구는 초등학교 학급수가 700개이고 북구가 666개이다. 그런데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남구의 초등학생 수는 16,085명이고, 북구는 15,893명이다. 학급수는 34개가 남구가 많으나 학생 수는 불과 192명의 차이를 보인다. 북구가 학생 수보다 초등학교가 부족하다는 것과 과밀 학급 문제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별 초등학교의 현황 및 학생 수의 연도별 추이(2015-2020)를 살펴보면,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개의 구·군은 초등학교 학급수와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중간에 아주 미미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다가 다시 감소하는 등의 현상을 보인다. 하지만 북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해서 학급 수와 학생 수가 증가하였는데 2020년에 와서는 학생 수는 여전히 많이 증가하는 데 반해 학급 수는 한 학급 줄어들어 2019년 667개의 학급에서 2020년 666개의 학급이다. 학생 수는 다른 구·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5년 13,120명, 2016년 13,265명, 2018년 14,646명, 2019년 15,535명, 2020년 15,893명이다. 4년 사이 2,773명의 학생 수가 증가한 것이다.

울산광역시 북구의 중학교 현황을 2020년 12월 기준으로 울산시 5개 구·군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구가 16개소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북구와 울주군이 14개소, 중구가 11개소, 동구가 9개소의 순을 보인다. 중학교 학급수로는 남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북구로 278개이다. 학생 수 역시 남구가 8,752명이고, 북구가 6,930명이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별 중학교의 현황 및 학생 수의 연도별 추이(2015-2019)를 살펴보면,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중구, 남구, 동구)는 2015년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 학교 수에 변함이 없는 데 반해 학급 수와 학생 수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울주군은 2016년 학교가 한 개 더 증설되었으나 학생 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20년 들어 학생 수가 6012명에서 6070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자체가 학급수와 학생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데 반해 북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학급수와 학생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8년 중학교 학습 수가 241개에서 2019년 254개, 2020년 666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생 수 역시 2018년 6,100명에서 2019년 6,290명, 2020년 6,930명으로 2년 사이 830명이 증가한 것이다.

울산광역시 북구의 고등학교 현황을 2020년 12월 기준으로 울산시 5개 구·군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구가 15개소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울주군이 13개소, 북구가 12개소, 중구와 동구가 9개소의 순을 보인다. 고등학교 학급수로는 남구가 433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울주군으로 276개, 북구가 248개, 동구가 207개, 중구가 205개이다. 학생 수 역시 남구가 9,729명이고, 그다음이 울주군으로 6,387명, 북구 5,780명, 동구 4,735명, 중구 4, 760명의 순을 보인다.

6) 정책 지원 영역

(1) 조직과 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 아동 관련 부서로는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산하 부서 여성정책팀, 아동보호팀, 보육팀, 인구정책팀, 아동 친화 드림팀 등을 들 수 있다. 아동 관련 업무가 가족정책과 산하 다섯 개의 부서에 모두 분산되어 있어서 아동 관련 업무 전담부서로 특정 부서를 언급하기가 어렵다. 2019년 기준으로 북구 내 아동 관련 사업은 108개 추진하였고. 아동 관련 사업 추진 부서는 총 13개이다. 아동 관련 업무 담당은 가족정책과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부서를 보면,

어린이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등 개선사업 등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는 농수산과, 독서프로그램은 도서관과 스포츠강좌와 세대공감놀이터는 문화체육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및 아동비만,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등 건강 관련한 많은 사람을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초중고교육비 지원은 복지지원과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은 사회복지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환경위생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 관련 모든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서를 언급하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아동 관련 사업들이 부서를 달리하면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정책과의 공무원 수는 가족정책과 과장 1명, 여성 정책 4명, 아동보호 4명, 보육 6명, 인구정책 3명, 아동 친화 드림 8명으로 모두 26명이다.

〈표 15〉 아동 관련 담당 부서의 업무 분담 현황(2021년 6월 현재 기준)

구분	여성 정책	아동보호	보육	인구정책	아동친화드림
인원수	4명	4명	6명	3명	8명
가족 정책과 부서별 담당 업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여성 단체활동 지원 -성별영향평가 정책 추진 -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 및 관리 -청소년 축제 및 청소년 주간 기념행사 추진 -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시설 등 운영관리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 및 지원 -청소년참여위원 회 운영 -여성새로운일하기센터 운영	-아동학대 신고 접수, 조사, 사례판단 -피해 아동보호 계획 수립 -피해 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 조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세부 업무 -아동보호전담 요원 아동보호 수행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아동행복지원 사업 및 아동보호 서비스 업무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쉼터) 운영지원 및 관리 - 가정위탁 보호 업무 -입양아동 관리 (양육수당, 입양 비용 지원 등)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접수, 지원, 연계	-국·공립어린이 집 운영, 위탁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정부지원 및 직장보육시설 관리 -어린이집 인가 (변경, 재개, 폐 지, 휴지 포함) -어린이집 지도, 점검 -어린이집 평가 인증 관리 -특수어린이집 지정 및 관리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지정 및 관리 -영유아 보육료 책정 및 지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책정 및 지원 -어린이집 종사 자 관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 터 건립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출산장려시책 발굴, 추진 -건강가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가족친화정책 추진 -다문화가족지원 -여가부부모교육 사업 -아이돌봄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 -국내 및 국제 결혼 중개업 관리 -한부모 지원 및 관리 -출산장려금 및 장애인출산지원 금 지급	-아동·드림스타트업무 총괄 -사례관리 대상 아동실태 및 욕구조사 -아동통합사례 회의 -사례대상 아동 의 복지, 보육, 건강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자원 발굴, 연계 -드림스타트 운영위원구성, 운영 -아동복지지관 협의체 구성, 운영 -슈퍼비전 사업 추진 -아동 통합서비스 전담요원 관리 -드림스타트 사업 전반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및 관리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추진

자료: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ukgu.ulsan.kr) 참고.

아동관련 사업 총 예산액은 2019년 기준 1,174억 9,254만원이고, 이 금액은 2019년 북구 전체 예산(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의 약 31.6%를 차지한다. 아동친화 영역별 예산 비중으로는 보건과 사

회서비스가 78.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아동권리별로는 발달권이 68.06%로 가장 높았다(울산시 북구a, 2019).

(2) 법·제도적 기반

울산광역시 북구는 2018년 12월 6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후 2019년 5월 2일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다. 조례 내용으로는 제2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8조 아동의 건강 증진, 제9조 교육·여가·문화생활, 제12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북구는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여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만 하더라도 2021년 5월 기준으로 52개 도시이다. 북구가 인증을 받게 되면 울산광역시 내에서는 처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3.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관련 현황 분석에 따른 문제점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조사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어린이 놀이와 여가(문화), 사회활동 참여, 안전과 보호, 건강, 교육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현황 분석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와 시민의식과 관련하여 북구는 아동의회를 마련하여 아동 정책의 실수혜자 대상자인 아동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수혜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참여 확대는 지금까지 아동의 참여 제한으로 아동의 관심사와 요구사항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시스템 마련은 바람직한 모습이고 아동이 어린 시절부터 이런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일찌감치 사회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배울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데에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북구는 아동 참여 보장을 위해 아동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참여 보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참여 제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동의회 구성을 들 수 있지만, 아동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아동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지역의 많은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기회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참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인식과 홍보의 부족으로 참여도가 떨어지거나 한정된 인원의 반복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균등한 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구 홈페이지만이 아닌 다양한 경로로 홍보 필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전과 보호 영역에서 북구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육아 종합지원센터, 아동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발달계좌지원사업과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등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구는 다른 구·군과 비교했을 때 지속해서 젊은 층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현황 분석을 통해서 보더라도 2021년 5월 현재 아동의 수가 5개 구·군 중 가장 많고, 좀 더 주의 깊게 보아

야 하는 것은 2018년 이후 지속적인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현실화한 운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30개소)이 민간어린이집(76개소)보다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은 5개 구군 증 가장 적다. 또한, 아동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도시가 되려면 사전예방 차원의 아동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요보호아동시설은 북구에 2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아동학대, 비정상 가정 등의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아동의 안전과 관련해서 보면, 아동 교통사고율이 2017년 이후 많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북구가 지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아동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예방 차원에서 가로등 설치와 조명도 기존보다 밝게 할 필요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문제, 아동이 많이 모이는 놀이터와 학교 주변의 안전 관련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놀이와 여가(문화)와 관련한 현황 파악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박금식·하정화+손주영·박지영(2017)의 연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어른 위주의 시설 조성이 아닌 아이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놀이와 여가시설 조성이 필요하다. 북구의 경우 공원이 107개가 있긴 하나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동구를 제외한 다른 구·군보다 적다. 특히 어린이 공원은 북구 전체 공원 증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긴 하나 울산시 전체 인구 중 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북구(47개)는 동구를 제외한 다른 구·군(남구 87개, 중구 59개, 울주군 192개)보다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도서관 역시 어린이에 초점을 맞춘 도서관이 부족하다.

북구는 문화와 예술, 놀이와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인 세대 공감 창의놀이터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놀이터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최진호(2018)의 연구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놀이터가 어른들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아이들이 지루해하기도 하고 큰 호감을 보이지 않아 이용도가 낮다. 아이들은 창의적 놀이시설을 많이 요구하는 데 비해 북구는 이러한 놀이터가 부족하다. 따라서 북구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안전하면서도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원과 운동장, 놀이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넷째, 건강 영역과 관련한 북구의 현황 분석의 결과를 보면, 북구의 의료시설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총 198개의 의료시설이 있다. 하지만 종합병원이 한 군데고 어린이 전문병원 또한 한 군데다. 물론 어린이 치료와 관련한 소아·청소년과를 둔 병원은 15개소 정도 있으나 아동 인구가 울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다섯째, 교육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북구는 매우 희망적인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치원 원아 수, 초등학교 학생 수, 중학교 학생 수 모두 큰 폭의 증가 추세에 있고, 5개 구·군과 비교했을 때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군은 201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북구만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처럼 북구는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수는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밀 학급 문제는 없는지, 학년이 높아

지면서 해외 유학 또는 학습 학습이 좀 더 나은 지역으로의 인재유출 현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상에서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조사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분야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좀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기본 요건은 조직과 예산이다.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전담부서와 적정 인력의 확보, 충분한 예산 지원 등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정책 지원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하자면, 북구에는 아동과 관련하여 총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없다는 점이다. 북구의 경우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존재한다. 하지만 아동 관련 업무가 가족정책과 산하 다섯 개의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한 업무 추진과 성과 평가가 원활하지 않다. 그리고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 2019년 기준으로 북구의 아동 관련 사업은 108개 추진하였고, 아동 관련 사업 추진 부서는 총 13개이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담당 부서는 가족정책과인데 여기에 소속된 공무원은 모두 26명으로 아동 관련 부서만의 인원은 아동보호 4명, 보육 6명, 아동친화드림 8명으로 18명이다.

북구의 경우 아동 관련 업무가 점점 더 중시되고 있고,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면 아동 관련 전담부서와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북구의 아동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만 보더라도 사업의 규모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아동 관련 사업 예산은 2019년 북구 전체 예산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Ⅳ. 울산시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구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의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데에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울산광역시 북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울산 북구 아동의회를 구성하였다. 아동의회의 구성·운영은 북구 아동들에게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에 첫 출발이 될 것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아동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고무한다((BMFSFJ, 2013: 110; 이선주·김성길·Frank Eckard, 2020: 18). 또한, 아동은 참여를 통해 자신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책임감 있는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된다(Richter 2002:7-8; 이선주·김성길·Frank Eckard, 2020: 18).

따라서 북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단지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공간 마련이라는 차원에서만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정

책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한 아동의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의 참여의식을 일찌감치 일깨우고 체험할 기회를 마련했다는데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북구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만큼 마냥 어리지 않고, 조숙해진 현대 아동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린 시절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의 참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지원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러한 의견이 반영(박금식, 2017:6)될 수 있도록 아동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아동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역의 아동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참여 유도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아동의회 활동의 학교 연계 자원봉사 점수 부여, 아동 청소년 기자단 운영, 아동의회 활동 실적 보고회 개최 등의 활동도 함께 병행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미래 도시계획의 방향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북구지역에 사는 아동들은 독립적인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방향이 아동의 안전과 보호, 놀이와 여가시설이 갖추어진 도시 조성을 의미하는 만큼 아동친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오늘날 부모가 자녀의 자유로운 야외 활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도시 내 교통사고와 범죄에 따른 위험 때문이다. 독일의 라인란트팔츠주는 1999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지원법에 준거해 '놀이 기본계획'을 개발했다. 이 도시계획기법은 아동의 의견이 기존 도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과 전문가의 거버넌스 구축 및 아동친화 도시계획 사업의 체계적인 개발 및 추진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이선주·김성길·Frank Eckard, 2020: 19-20). 오늘날 아동은 교통 문제로 인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잃었고, 아동이 유일하게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는 아동의 욕구에 맞춰 조성되지 못함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지 않다.

놀이터는 아이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놀이 장소로 놀이를 통한 창의성 계발,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의 계기, 가족들과의 휴식 공간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도가 높다. 따라서 타 도시의 성공적인 창의 놀이터 조성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북구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창의놀이터 조성이 필요하다.

다른 도시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강북구 색동어린이공원 놀이터를 민관협력형 어린이놀이터로 재조성한 사례가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강북구와 코오롱, 세이브더칠드런 등과 '강북구 색동어린이공원 놀이터 재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창의 어린이놀이터는 시설물 위주의 낡고 개성 없는 놀이터를 철거하는 대신 창의적이고 모험요소가 강한 놀이 활동 중심의 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중앙일보, 2017. 2.23.)

또한, 창의 어린이놀이터 '꿈틀'은 좋은 놀이터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된 결과물로 아이들 눈높이와 아이들의 욕구에 맞는 놀이터 조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놀이터 조성과정을 눈여겨볼 만하다. 창의놀이터 '꿈틀'은 2014년 10월에 200여 명이 참여한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어린이놀이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좋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2015년 4월 '어린이 놀이터 함께 만들기 약속'을 제정 발표하였다. 이후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낡은 놀이터를 안전하고 창의적인 모험 공간으로 다시 조성했는데 어린이와 마을 활동가들이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설계부터 조성,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다. 주민, 어린이, 전문가가 디자인,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참여하는 커뮤니티형 놀이터인 창의놀이터 '꿈틀'이 서울시에 현재까지 91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놀이기구는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해 인체에 해가 없는 재료를 사용했고, 전문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내 손안의 서울, 2021. 4.16).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아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아동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놀이 공간, 학교, 주거시설 등 도시 내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과정에서 아동을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도시조경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내 거주하는 아동과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로부터 놀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된 공간의 확보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비엔나 거리 곳곳에는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 표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아동 친화적 식당 및 카페"표식 스티커를 제적하여 희망업소에 배포함으로써 업소의 관심도 높이고, 이용 가족과 아동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휴일 특정 시간에는 교통을 통제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도 한다(박세경, 2016).

이처럼 아동친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가기 위해서는 아동정책과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주체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일은 지역사회 전반의 물리적 환경과 가치체계와 맞물려 있으므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아동의 놀이 공간 조성 사업을 예로 든다면, 아동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아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되려면 도시계획가, 건축가, 관련 행정기관, 아동의 체계적인 참여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친화 도시계획은 사실 도시계획 부서 만에 의해 추진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아동복지 관련 부서, 두 개의 부서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 친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가의 주도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아동의 눈높이에서 참여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아동 전문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협업과 정치가의 관심과 지원 역시 필요하다(이선주·김성길·Frank Eckard, 2020).

앞에서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현황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북구는 아동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북구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당장 보기에는 아동만이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사회의 기본 집단인 각 가정의 행복뿐 아니라 도시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북구의 미래를 밝게 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박세경, 2016). 다시 말해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곧 북구 거주자들 모두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책 추진이다.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 도서관, 학교, 학원, 의료기관, 복지시설, 여가시설, 사회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자원은 아동의 배움을 자극하여 건강한 발달을 이끌어 낸다. 특히 공원, 놀이터, 스포츠 센터 등 여가활동과 관련된 기관은 지역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및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주민들과의 접촉 빈도를 높여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서영미, 2018: 400). 따라서 북구의 도시 주변 환경이 아동 친화적일 때 아동의 발달과 신체에 유익하고 아동을 둘러싼 환경체계 내에서 일상적인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북구의 아동들은 긍정적이고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는 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은 지속가능성을 지닌 민주적인 사회, 굿 거버넌스 실현의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행정 구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행정부처,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구축이 필요하다.

북구는 먼저 다양한 정책 분야 중 아동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와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아동 관련 조직이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아동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또한 부족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동·청소년의 접근에서는 아동 관련해 여러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기관이 학교이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사업을 행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경찰청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아동학대, 교통사고,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아동학대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데 아동보호와 안전에 관련한 사회적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 아동학대 예방·발견·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4곳 있지만, 분리보호나 치료를 위한 전담시설이 없다. 아동학대는 예방이 최선이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즉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인 아동을 빨리 분리하는 것이 필수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충남 천안의 한 가정에서 여행용 가방에 갇혀 부모에게 폭행당하다 숨진 남자 어린이나 부모의 잔혹한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맨발로 집을 탈출한 경남 창녕의 여자 어린이 사건, 라면 형제 사건 등 아동학대는 80%가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있고 가해자의 77%가 부모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학대 아동을 가정 밖에서 보호할 기관이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실정으로 가정에서 학대를 받은 아동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비율은 82%에 달한다. 재학대 건수는 2019년 3,431건으로 5년 사이 세 배 이상 급증했다(국제신문, 2020. 10. 26.).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아동보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아동 친화 도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아동의 참여와 권리 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정치가의 관심과 지원 역시 필요하다.

북구가 아동 친화 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실질적으로 아동 친화 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논의와 이를 정책에 반영시켜 나갈 때, 북구는 '굿 거버넌스'의 체계를 마련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정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간이 됨으로써 21세기 사회가 지향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제대로 실현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넷째, 북구의 인구 추이 현상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 비해 매우 희망적이고 미래가 있는 자치단체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이후부터 2021년 5월 현재까지 인구의 변화를 보면, 울산 전체적으로는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는 데 반해 북구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다른 구·군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 인구의 증가를 통해 알 수 있다. 2017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1년 4월 기준 북구가 전체 인구 대비 아동 비율이 22%로 울산시 평균이 18.3%인 것보다 높고, 다른 구·군에 북구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치원의 원아 수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 못한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해서 북구에 정착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대입으로 인해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춘 인근 지역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희망 의사가 있고, 해외 유학 등으로 인해 북구를 벗어나고자 욕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과밀 학급 문제 해소,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통한 감소 대책 마련, 북구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서 자연 체험적 학습공간의 마련, 자유학기제에 필요한 직업체험시설의 확충, 학원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강좌 지원 등을 통한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지속해서 정착하고 싶어 하는 도시의 매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생계유지를 위한 직장을 찾아서 거주지를 이전할 것이고, 교육 환경이 좋은 곳도 충분한 이주 요인이 된다. 또한, 의료 환경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동의 건강을 위해서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 목적의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 인구가 많은 북구의 경우 아동 전문병원의 확충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은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을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상담 센터 확충이 필요하다. 아동의 건강은 사전예방관리가 우선이라는 차원에서 아동 청소년의 상담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경상일보. (2020). 울산 북구 제2대 아동의회 발대식 개최, 6월 22일 자 기사.

경상일보. (2021). 울산 주소 갖기' 도시 경쟁력 강화의 첫걸음, 5월 25일 자 기사.

국제신문. (2020), 해운대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 법 적용, 7월 12일 자 기사.

국제신문. (2020), 학대 피해 아동보호 시스템 마련돼야, 10월 26일 자 기사.

김진숙. (2017).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부모와 아동 관계자의 인식비교: A기초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11):49-60.

내 손안의 서울(2021), 창의놀이터 '꿈틀' 5곳, 스마트 서울 지도로 찾아가다, 4월 16일 자 기사.

박금식. (2017). 아동 친화 도시, 참여 확대와 권리증진이 우선이다, 부산 여성 가족 BRIEF. vol 034. 12월호.

박금식·하정화·손주영·박지영. (2017).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박세경. (2016),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유럽 주요 도시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박효숙·이우민·김승남·김재철·이경환. (2017), 어린이 참여 마을설계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달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95: 149-167.

서영미. (2018). 지방정부의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한 탐색적 고찰, 「지방정부연구」, 22(2):383-407.

신정엽. (2018). 도시지리학 관점에서 아동친화도시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7(3): 399-413.

울산광역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시정백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통계연보.

울산광역시 북구. (2020), 구정백서.

울산광역시 북구a. (2019). 통계연보.

울산광역시 북구. (2019. 12),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17). 아동친화도시 http://childfriendlycities.kr 에서 2017년 2월 10일 인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1). 알기 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n.d.).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추진계획 및 영향진단 서식. 서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희정·권순정·강순원·변종석.(2017). 아동친화도시 지표를 통해서 본 0시 아동친화도시 구축 방향성, 「국제이해교육연구」, 12(1):159-192.

이선주·김성길·Frank Eckard, (2020),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특징과 한국에의 시사점, 「국토연구」, 105:15-30.

이은혜·홍영준. (2020).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 방향에 관한 고찰-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56집: 73-100.

이태수. (2016). UNICEF의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와 한국의 아동복지 발전, Journal of Global Social Welfare, Vol 6(2): 57-80.

조선일보. (2020), 스쿨존서 일가족 덮친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구속 송치, 11월 24일자 기사.

조선일보. (2021), 교통사고 비용 연 43조...충남 1인당 83만원 최다, 4월 8일자 기사.
조선일보. (2021), 인천스쿨존서 초등생 친 운전기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고 예상 못해, 5월 13일자 기사.
조선일보. (2021), "인천시 자치경찰위 출범..."최우선 정책은 어린이 안전," 5월 17일자 기사.
중앙일보. (2017). "서울시, 민관협력형 '창의어린이놀이터' 강북구에 조성," 2월 23일자 기사.
최선경. (2019), 지방정부의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강화 방안: 보편적 복지로의 아동복지패러다임의 변환,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5(2):313-319.
최아라·김혜숙·이숙. (2019). "G지역사회의 아동친화도와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0(3):1-25.
최진호. (2018).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근린공원의 아동친화환경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정화. (2016).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2016년도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홍승애·이재연. (2014).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아동과 권리」, 18(2):53-70.
Bridgman, R., 2004, Criteria for best practices in building child-friendly cities: Involving young people in urban planning and design, Canadian Journal of Urban Research, 13(2):337-346.
Isami Kinoshita. (2014). Japanese Movements on Children's Participation and Child-freindly City, human rights education in asia-pacific. 13~25.
McAllister, C., 2008, Child friendly cities and land use planning: Implications for children's health, Environments, 35(3):45-61.
Morrow, V. (1999). We are people too: Children,s and young people's perspective on children,s rights and decision-making in Englan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7(2).
Nour, O.E.H.M., 2013,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in the MENA region,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59(4):489-504.
Riggio, E., 2002, Child friendly cities: Good governanc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14(2):45-58.
UNICEF. (1995). Toward Child Friendly Cities New York: UNICEF.

김도희(金度希):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비선호시설입지갈등의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2001)를 취득하고, 현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갈등관리, 지방행정, 거버넌스와 공공관리, 여성행정 등이다. 주요논문으로는 "민관협력파트너십을 통한 가족친화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과제(인문사회과학연구, 2017), 젠더거버넌스 실현의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 2019), 1인가구 시대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과제-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 2021) 등이 있다.(dhkim5090@ulsan.ac.kr)

〈논문접수일: 2021. 12. 23 / 심사개시일: 2021. 12. 26 / 심사완료일: 2022. 1. 14〉

Abstract

Policy Implications and Issues of Child Friendly City Development Project: A Case Study on the Buk-gu, Ulsan City

Kim, Do Hee

Children are the basi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 nation, which is possible only when children grow up to be competent individuals to lead the future society. But what about our reality? Local governments' interest in developing policies was insufficient to protect children who will lead the future of our society. In this respect,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Buk-gu, Ulsan's child-friendly city development project. Also, this study focuses on the directions and things to consider when a local government proceeds with a child-friendly city development process. In the case of Ulsan, where population outflow continues, if Buk-gu's child-friendly city development project is successfully carried out, the project outcomes will be useful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pulation outflow prevention policies. Also, the project may provide an opportunity to acquire a positive image as a "good city to raise children," which can immediately help increase residents'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Furthermore, the project may provide an opportunity for other local governments of Ulsan to pursue child-friendly city certification and act as valuable referenc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related policies.

Key Words: Child friendly city, Child rights, Child friendly city certification, Child welfare, Child policy